

도토리 거위벌레의 생태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백양골의 산소같은 해설사 이지선 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맑은 산소를 한번 들이쉬어 보고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볼까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아름다리 갈참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양골 입니다. 갈참나무는 전국 어느 산에서나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곳은 이렇게 크고 우람한 갈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것은 이곳 내장산국립공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을 한 번 내려다 볼까요? 오시면서 싱싱한 푸른빛깔의 도토리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셨나요?

왜 도토리 가지가 떨어져 있을까요? 비가 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젯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까요? 이맘때에 산에 가면 도토리가지가 떨어져 있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토리 가지가 떨어져있는 것은 도토리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열매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면 어머니는 ‘저건 벌레들 먹을 것’이라며 도로 갖다 버리라고 하셨지요. 그 벌레가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바로 도토리거위벌레입니다. 도토리 거위벌레는 말 그대로 도토리를 먹고 사는 거위벌레입니다. 도토리는 여러 종류의 참나무류에서 열립니다.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등 참나무류는 숲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토리거위벌레의 밥은 지천에 깔린 셈이지요.

(사진)도토리거위벌레는 몸길이가 1센치미터 정도이며 온몸에 회색빛 털이 나있고 주둥이가 유난히 길다. 어른벌레는 7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는데 특히 무더운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키가 워낙 큰 참나무류에서 사니 어른벌레를 보기란 쉽지 않지요. 더구나 도토리에 알을 낳는 장면은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도토리거위벌레가 알 낳는 장면을 보신 분 계신가요?

새끼집을 짓고 알을 낳는 여느 거위벌레와는 달리 도토리거위벌레는 도토리열매에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고 어른벌레는 나뭇잎을 먹지요.

여름철 도토리는 완전히 여물지 않아 비교적 연합니다. 도토리거위벌레가 알을 낳기에 딱 좋습니다. 이시기에 알을 낳으면 힘이 덜 든다는 것을 녀석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 껍질을 어떻게 뚫는지 궁금합니다. 주둥이가 몸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긴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도토리에 구멍을 깊이 뚫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큰턱이 발달되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드릴역할을 한답니다.

어떻게 알을 낳는지 알아볼까요? 나뭇가지표면에 기다란 주둥이를 꽂고 움푹움푹 하면서 흠을 냅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려 할즈음 흠파는 것을 멈추고 근처에 와 있던 수컷과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자르다 만 나뭇가지의 도토리로 다가가 긴 주둥이로 도토리 뚜껑에 꽂고서 흠을 파지요. 이때에 수컷은 암컷을 따

라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도토리에 구멍을 뚫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지만 암컷이 알을 무사히 낳을 때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지요. 도토리에 구멍을 뚫은 후에 이빨로 도토리 속을 파내어 구멍을 넓힙니다. 알 낳는 분말실 공사가 끝나면 산란관을 구멍에 꽂고 알을 하나 낳고 부스러기를 주둥이로 긁어 모아 구멍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르다만 나뭇가지로 가서 주둥이로 마저 잘라 땅에 떨어뜨립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의 큰 턱은 어미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발달되어 단단한 도토리를 갉아 먹습니다. 20일 이상 도토리밥을 먹고 나면 종령 애벌레가 되고 바깥 세상에 나온 종령 애벌레는 땅 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잡니다. 이때가 7월 하순부터 10월 하순 경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말부터 번데기가 되고 6월이 되면 비로소 도토리거위벌레의 어른벌레가 탄생합니다.

왜 도토리만 떨어뜨리지 힘들게 가지째 떨어뜨릴까요?

도토리와 가지를 던져볼까요?(획 던진다.)

도토리만 떨어지면 퐁퐁 튀어서 멀리 간답니다. 하지만 나뭇잎과 같이 떨어지면 도토리가 상처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나무밑으로 떨어지죠.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낙하산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걸 도토리 거위벌레가 알았다니 신기하고 지혜로운 일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도토리거위벌레로 결국 알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사랑이죠. 항상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내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쁘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 부모님의 수많은 노력 덕분이 아닐까요? 이번 도토리 거위벌레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